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전서-

잠언 12:8, 데살로니가전서 1:8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만큼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생기와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과 에덴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12 가지,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땅 끝까지 237 나라와 오천 종족까지 살리는 특권까지 주셨으니 주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언약이 대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불가능한 것이 절대가능으로 내 안에 믿어지며 보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화요집회 서론에서 오직 예수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말씀을 주셨다. 왜 오직 예수이어야 하는가?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이어야 한다. 천국문제, 지옥문제, 사탄문제,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해결된다. 국가, 가정, 개인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예수로만 지옥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열쇠이다. 두 번째는 후대치유이다. 여러분의 후대가 있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를 인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께 다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이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되었을 때 후대가 치유되고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믿어주고 축복해주면 된다. 후대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재앙을 막는 길이 예수라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하면 재앙, 문제가 절대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오직해야 한다. 네 번째로, 오직 예수를 하는 이유는 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오직 신비, 오직 축복, 오직 다른 것을 하면, 참 복음운동 참 전도운동 참 교회운동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 제자운동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 내가 염려, 걱정, 근심, 불순종할 수 있다. ‘당신은 오직 예수입니까?’ 질문 받았을 때, ‘그래요, 내가 넘어질수록 오직 예수 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제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게 보낸 편지형식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빌립보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데살로니가교회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7 장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7 장 1 절에서 3 절을 보겠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 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다. 전도캠프의 방법인 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라고 고백했다. 세 안식일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는 이사야 53 장,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을 것이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 탐이 겨우 3 주간 복음을 전했지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면 예비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손(뜻 : ‘치유함’)이란 사람은 자신의 집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제공하였다. 아손은 로마서 16 장 21 절에도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로 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 같다. 전도가 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맞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되었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엇이 걱정되었는가.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그 이유를 발견하면 된다. 그래서 강단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이 캠프의 현장에 나가면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 결국 데살로니가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다. 잠언 27 장 2 절에 보면 칭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 또한 잠언 28 장 4 절에도 칭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중심,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하여 수정해주고 또 더욱 힘써서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다.

1.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교회가 칭찬받은 믿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 덕목은 데살로니가전서 1 장 3 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소망의 인내’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 바란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복지, 노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며 헌신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참을 수 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강단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6 절 말씀이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좋을 때 기쁜 것이 아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다.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뻐하겠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기준, 수준, 표준을 바꾸어야 한다.

(3)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열정이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잘못된 임박한 종말신앙이 생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 때문에 사도 바울

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6 절에서 5 장 6 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오직 예수 하고 있으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2.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실천리스트를 데살로니전서 4 장과 5 장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인다운 삶에 대한 실천리스트를 기록해 주고 있다.

(1) 4 장 1 절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실천목록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건 헌신을 해야 한다.

(2) 4 장 3 절 후반부에는 음란을 버리라고 가장 처음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은 거룩성이다. 우리의 성령충만의 능력은 거룩성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우리의 절대목표를 두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 장 5 절과 6 절에서도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4 장 9 절은 ‘형제를 사랑하고’, 4 장 11 절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 된다.

(3) 그러면서 5 장 12 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권하고 있다. 목사, 교역자, 장로, 디아코나 사역자, 교사, 교회에서 세운 모든 청지기 사명자들을 의미한다. 5 장 13 절은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5 장 14 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셨다. 5 장 15 절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6 절에서 18 절 말씀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류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가 제자 훈련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초특급 믿음에 다다른 것이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며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 장 19 절에서 22 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였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헌신일수도, 일일 수도, 전도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할 때 내가 망할 것을 선택한다. 나

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서의 영적상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실천미션으로 주신 말씀이 5 장 27 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라는 말씀이다. 이 명령이 300, 30, 3, 70 현장에 대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다.

3.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숨겨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9 절에서 10 절 말씀을 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with, immanuel, oneness 의 축복이다.

(2)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친히 온전히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3 절에서 24 절을 보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지 우리들의 부속함과 연합함을 인정하고 우리들이 말씀대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붙잡을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친히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속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24시간 계속해야 한다. 언약의 강단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되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믿음의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아손과 같은 제자를 찾아서 데살로니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들이 ‘오직 예수’로 결론만 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불러 주실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 24시간 깨어 있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텐의 축복까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만드는 이면계약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떻게 해야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고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 있는지 기록해 보기를 바란다. 조금만 실천해도 ‘인생작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하기 위해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언약과 절대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체질화시켜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계선교대회를 맞이하여 전 세계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사정이 있어서 선교현장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사명자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